

전일동향

달러 반등에...1,342.80원에 마감

9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,345.60(15:30 기준) 대비 5.10원 하락한 1,340.5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 환율은 전일 엔화 강세와 외국인 대규모 달러 선물 매도에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1,334.60원을 기록하며 저점을 낮췄으나, 뉴욕 장에서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발표에 반등하며 1,340.60원에 증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7.5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74.17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40.50	1342.10	1334.60	1340.60	1337.90
	엔화	868.32	874.73	867.97	874.17	-
	유로화	1554.30	1560.57	1553.42	1557.60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35	-1.79	-4.9	-10.76
	결제환율(수입)	-0.01	-0.52	-2.69	-7.03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강달러 제한에...1,34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2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36.10, 15:30 기준) 대비 4.25원 상승한 1,340.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강달러 제한 및 수급 요인에 상단 제한될 전망이다. 간밤 미 재무부는 국채 바이백 규모를 종전 20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확대했다고 밝혔으나, 최대 100억까지 예상했던 시장은 실망하며 30년물 금리가 5.292%까지 상승하는 등 국채금리가 급등했다.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밝히며, 중동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에 브렌트유는 101달러를 상회하는 등 국제유가가 급등했고, 이는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 다만, 이러한 강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, 미 재정 건전성 우려와 엔화 강세 영향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. 또한,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 등 매도 우위 수급 여건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방 압력을 완화시키며 금일 환율은 좁은 박스권 등락이 전망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35.00 ~ 1345.5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4348.08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.2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52380.66, -405.41p(-0.77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208.85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2619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